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판결문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회는 성서, 재일대한기독교회헌법, 규칙, 계규, 재판 규정에 근거하여 교회의 신성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출 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중한 심리를 한 결과, 이하와 같이 판결한다.

제소인 :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장로 전삼량, 김일환

항소인 :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담임목사 김해규

항소인 (상소인) :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장로 임백생

주문 (징벌내용)

제 1, 항소인 김해규목사에 대한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인 김해규목사를 정직 (停職)에 처한다. 다만, 항소인 김해규목사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여 동경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벌 (解罰)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무거운 징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기 (記)

이하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죄문을 작성하여 2015 년도 동경교회의 공동의회,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2015 년 4 월에 개최 예정 된 총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2013 년 4 월 7 일에 개최 된 임시 공동의회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장로 신임투표를 강행하여 전삼량장로와 김일환장로의 장로 시무 해임에 이르게 한 것은 총회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나) 위법한 장로 신임 투표에 근거하여 전삼량장로와 김일환장로를 시무장로로서 인정하지 않고, 공소중의 임백생장로를 시무장로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동경교회 성도사이에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다) 동경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라는 교회 책임자로서의 직책에 있으면서 관동지방회 및 총회의 부담금 납부를 등한시하여, 그로 인한 관동지방회와 총회에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제 2, 항소인 임백생장로에 대한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치리 회의 판결 및 관동지방회 치리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인 임백생장로를 정직 (停職)에 처한다.

죄로 인정되는 사실

제 1 항소인 김해규목사에 대해서

1. 항소인 김해규목사는 2013 년 4 월 7 일 개최 된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의 임시공동의회에서 장로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성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해석을 근거로 장로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한 전삼량장로 및 김일환장로의 시무 해임을 강행한 것이다.
2. 항소인 김해규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위원회가 전향에서 언급 한 장로 신임투표가 무효이며 두 장로의 시무해임은 무효라고 하는 헌법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두 장로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항소인 김해규목사는 2013 년 1 월 20 일에 개최 된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실시 된 장로 선출 선거의 개표를 담당했던 임백생장로가 고의로 부정개표를 행한 것에 대하여 같은 해 3 월 31 일 개최 된 당회에서 임백생장로에 대해 제명 처리를 하였는데, 그 판결에 불복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에 항소 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공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그 직무를 잃지 않는다" 는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임백생장로의 시무장로로서의 직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 2, 항소인 임백생장로에 대해서

항소인 임백생장로는 2013 년 1 월 20 일 개최 된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공동의회에서 실시 된 장로 선출 선거의 개표시에 고의로 부정개표를 행했다는 것이다.

<중략>...

※판결문 전문은 총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면에서 계속 됩니다. →

제 5, 징벌의 선택 이유에 대해서

1. 김목사에 대해서

김목사는 재일대한기독교교회와 선교 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 파견 받은 선교사로서 관동지방회에 가입이 인정된 후, 관동지방회로부터 동경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임을 받은 목사이며, 동경교회 담임목사이고 동시에 당회장이다. 그 의미는 선교협약에 근거하여 파견된 재일대한기독교교회의 헌법과 가입을 인정해 위임식을 거행한 관동지방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위임을받은 동경교회의 역사를 존중하며 교회의 평화적 일치를 위해 노력하며 지방회의 원활한 교류의 유지와 발전 및 약소 교회의 원조 등에 있어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문제와 여기에 관련되는 총회와 지방회에서의 김목사의 지금까지의 일련의 행동은 교회와 지방회, 총회의 질서 보전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해 왔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목사로서 그러한 행동이 지금까지 재일대한기독교교회 내의 교회 성도 및 교역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우려와 마음의 고통의 기도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는지, 김목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일대한기독교교회의 106년이나 되는 선교 역사의 발상지로서의 교회이며 지금까지 재일동포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총회나 지방회 안에서도 어머니교회로서 존경 받을 만한 많은 모범적인 공헌을 사랑으로 이루어 온 동경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초심으로 되돌아 볼 것을 본 치리위원회는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목사는 임장로의 부정개표에 관계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의장인당회장으로서 공동의회에서 총회 헌법을 위반하는 장로 신임투표를 행한 것, 재검표에 이르기까지의 김목사의 판단과 행동이 오늘날 동경교회의 혼란에 이르고 있다는 것, 장로 신임투표에 관계된 장로의 자격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일체 응하러고도 하지 않고, 대립 자세를 계속 해 온 책임은 중대하다.

<중략>...

또한 정직의 기간은 무기한이지만 2015년 4월 예정된 총회 상임위원회까지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하고 동경교회의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본 치리위원회가 판단 한 경우에는 정직을 해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회개와 사죄가 없고 동경교회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면직 판결을 하는 것도 검토되는 것을 부연한다.

2. 임장로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부정개표를 행한 것이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동경교회를 혼란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면할 수 없다. 가령, 그러한 교사가 김목사로부터 실제로 있었다고 할 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의 신앙이란 목사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의 목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 주면서도 만일 목사가 성경의 말씀(예를 들면, 십계명의 제 9계명 "위증하지 말라")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엄하게 충고하는 것이야말로 장로로서 목회자에 대한 사랑의 자세이다. 그러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지시에 맹종하는 것은 장로로서 미숙함을 표출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 6, 결어(結語)

본 치리위원회는 동경교회, 관동지방회, 재일대한기독교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년 12월 29일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치리위원회 위원장 김성제
위원 김필순 조영철 나카에요이치 강부자 김성원 백승호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총회장 조중래
서기 이근수
총간사 김병호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 gum・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우리의 희년” (레위기 25:8-12)

재일대한기독교회 「중부지방회 설립 50 주년 기념예배」 설교, 2015 年 2 月 15 日, 나고야교회

김성제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 부총회장, 나고야 교회)

※연재 (1)

I. “희년”이란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가 나옵니다. “7”, “12”,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50”이라는 숫자입니다.

“7”은 우리가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6 일 동안 천지창조를 끝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안식일이 7 일입니다. “12”는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12 지파의 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의 7 일째인 “7”을 7 번째의 안식년으로 하여 밭이 경작 기간을 쉬는 휴한기(休閑期)를 응용한 것입니다(출 23:10-11). 또한 7 번째의 안식년의 응용은 7 번째의 부채를 면제하고(신명기 15:1-11), 더불어 같은 동포인 히브리인을 채무 노예 상태입니다. 즉,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채권자의 노예가 된 현실로부터 7 년 만에 해방하는 규정(신명기 15:12-15)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25:8-12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7 번째의 안식년의 “7”을 7 배로 한 49 번째 다음 해를 희년(나팔)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채로 인하여 채권자의 손에 넘어 간 땅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 갑니다. 그로 인하여 빚 때문에 채권자 밑에서 노동을 강요 당하던 사람들이 원래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을 허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 하여 “요벨의 해”라고 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희년”(禧年)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그러한 해방을 알리기 위하여 불게 된 나팔을 의미하며,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소유지를 잃었던 사람들이 원래의 소유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구약성서의 역사 기록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등과 예언서에서 이러한 희년의 해방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보면 세계 교회는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빚을 부유국들이 일단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베리”(희년의 영어 번역은 Jubilee) 운동을 15 년 전에 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5 장 13 절에서 마지막 55 절까지의 본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 매입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토지 매입은 빚을 진 결과, 결국에는 채권자의 손에 땅을 팔아 버린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의 노력이나 친족의 힘으로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희년의 해방 규정과 그 후의 토지 환매(還買)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규정의 근본 가르침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 내는 빈부 격차에 의해서 결국에는 땅까지도 상품처럼 매도(賣渡)되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본인 또는 친족의 노력과 힘으로 다시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실현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년에 하나님의 힘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토지 소유권을 지키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성경이 가장 소중히 하는 언약(계약)의 신앙(신학)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지파와 씨족과 가족 공동체에게 약속의 땅을 할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며(레위기 25:23), 하나님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류자들(奇留者, 계림)이며, 체재자들(滯在者, 토셔빔)”(私譯)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사리사욕을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에 의해 애굽(이집트)의 노예생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지금은 하나님 자신의 것(노예(55 절))이 되어 하나님의 토지를 맡게 된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의 가르침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계약에 의해 죄 사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로 하나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교의 장소(토포스)로 맡겨 주시고, 파견되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론의 기초에 레위기 25 장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언약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해를 한 후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지방회와 총회가 무엇인가? 즉, 재일대한기독교회라는 존재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이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一財団法人 クリスチャン福音・企業総務サイト
レホボト・ジャパン
Christian Calling Search Site
http://www.rehoboth.jp
Tel: 090-3945-3373
e-mail: info@rehoboth.jp
住所: 兵庫県芦屋市朝日 10-35-101
レホボトジャパン 検索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서부지방회>

회장 회의 및 1일 연수회



1월 11일 (주일), 오리오교회에서는 서남지방회 “정초 사경회 및 도제직회”가 개최되었다.

정초 사경회는 선교부장인 최영신목사 (우베교회)의 사회로 일동이 찬송을 부른 후에 강부자장로 (부회장, 오리오교회)가 기도하고, 김성효목사 (쿠마모토교회)가 “어머니의 믿음” (누가복음 1:26-38)이라는 제목으로 저녁 식사를 전후로 두 번에 걸쳐서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김목사는 수태 고지에서 시작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의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넓은 사랑과 관용으로 사람들을 감싸는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재일”의 고향이 되도록 인도되어 온 실제 체험을 섞어 가면서 말씀을 전했다.

강연 후에도 찬양을 하였으며, 김명균목사 (지방회장, 후쿠오카 중앙교회)가 축도했다.

그리고 김명균목사의 사회로 도제직회를 개최하여 각 교회와 각 기관의 현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며, 그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서 모두 마쳤다.

(보고: 김성효)

<서남지방회> 정초 사경회

도 (都) 제직회 개최

서부지방회 여성연합회 “2015년도 회장 회의 및 1일 연수회”가 2월 19일 (목) 오전 11시부터 코베교회에서 23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최미에코부회장의 사회로 한세일목사 (코베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 (고린도 9:19-2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진 회장 회의는 이현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각 교회 여성회 회장들이 소개되고 각각 연간 활동보고를 했다. 특히 올해는 일본 기독교단 효고 교구의 여성회 임원 3명이 특별 참가하여 소개되었다.

각 교회 여성회는 회원 수와 각 교회의 상황은 달라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였다. 점심 봉사는 코베교회 여성회가 사랑이 담긴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였다.



오후부터 1일 연수회는 이화순선교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승희목사 (오카야마교회)를 강사로 “신앙 계승” (부제: 말씀, 가치관, 교육에 따라)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믿음의 계승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연수회였다고 말했다.

(보고: 유정혜)

2015년 KCCJ 전국교역자 연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5년 교역자 연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빠른 시일 안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5년 5월 18일 (月) ~ 20일 (水)
- [장소] 유인치 호텔 (ユインチホテル南城)
〒901-1412 沖縄県南城市佐敷字新里 1688
- [주제] 마이노리티와 세계선교 (오키나와를 배우자!)
- [강사] 김지철목사 (소망교회 담임목사)
- 참가비: 25,000 원 (부부: 45,000 원)
- 교통비: 각자 부담, 각자 예약
- 신 청: 1. 메일: shinacho2003@daum.net
2. FAX: 03-3486-9170
- ※신청기한: 3월 31일 (主日)、기일연수, 50명 선착순
- 문 의: 090-9345-6232 (조영석목사)
-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성삼

전도사, 선교사 연수회 알림

제 52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신학교시위원회 세칙 변경에 의하여 금년부터 전도사고시 및 목사고시에 전도사연수회 이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연수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새롭게 총회에 가입한 선교사 연수회도 실시합니다.

- 일정: 2015년 6월 15일 (월) - 6월 20일 (토)
(개회예배 -14:00) (폐회예배 -11:00) 예정
- 대상: 전도사 및 목사고시 수험자, 가입 선교사
- 장소: 총회신학교 (숙박 포함)
- 비용: 참가비는 총회 부담
- 과목: 총회헌법, 재일신학, 총회사, 일본기독교사, 재일 선교학, 에큐메니컬 신학, 총회 예식서 등
- 문의: 서기 박영자목사, 교무 한성현목사

2015년 3월

신학교시위원장 김무사
재일총회신학교교장 정연원